

2. 2015년 재정운영 방향

□ 재정여건

- 세입여건은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회복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
 - ▶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(도세)는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감소 전망
 - ▶ 실물경기 및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는 연차별로 감(減)정산 예정
 - ▶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관련시설에 대한 국가기금지원 등 영향으로 대회개최 준비 완료시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
- 세출수요는 의무적 경비,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등 순도비 추가부담 요인이 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
 - ▶ (의무적 경비) 채무상환 원리금 증가분 164억원, 인건비성 경비 증가분 149억원 등 전년대비 '14년대비 증 345억원(4.4%↑)
 - ▶ (국고보조 도비부담) 동계올림픽시설 도비부담 증가분 450억원, 레고랜드 진입교량 149억원 등 '14년대비 증 652억원(20.4%↑)
 - ▶ (신규 자체사업)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 169억원, 소방헬기구입 및 장비교체 170억원 등 '14년대비 증 172억원(4.2%↑)

⇒ 도비 추가부담 세출수요 전년대비 1,169억원 증가

□ 자원대책

- ▶ 대규모 사업 중심의 세출구조 긴축 조정운영
- ▶ 축소, 절감, 동결 등 가능한 기본운영경비 절감운영
- ▶ 부족한 세출 증가분은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

※ '15년 외부차입액 980억원(동계올림픽시설 780억, 지방도 200억)

□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주요사업

- 소규모·민생사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, 자체사업 중 대규모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축 편성
- 실국 자율편성사업비 축소(△10%), 업무추진비 절감(기관운영 △18%, 시책추진 △5%), 국외여비 동결 등 기본운영경비 절감운영
- 복지재정을 제고와 민생안정, 도민 안전장치 기반은 우선 투자
- 지역경제 활력과 올림픽 이후 건전재정을 대비하는 지방채 발행(최소화)

《 분야별 주요사업 》

- ① 동계올림픽** 성공개최 준비와 민선6기 공약 등 도민과의 약속이행 .. 4,590억원
 - 경기장 및 진입도로(3,754억) 등 차질없는 대회준비와 문화도민운동 지원(10억)
 - 사전 실행절차가 마무리된 공약사항 등 도민과의 약속사항 반영
- ② 민생경제**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의 선순환체계 구축 .. 1조 134억원
 - 청·장년일자리 12억, 사회적기업 70억, 소도읍육성 137억, 전통시장현대화 110억
 - 문화예술진흥 12억, 국지도 확포장 329억, 명품산악자전거길 5억, 유기질비료 153억
 - 친환경급식 204억, 기업도시지원 80억, 이전기업보조 14억, 서민금융 21억
- ③ 체감복지** 모두가 만들고 함께 누리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구현 .. 1조 966억원
 - 기초연금 3,573억, 기초급여 1,667억, 장애인시설운영 237억, 노인일자리 195억
 - 영유아보육료 903억, 대학생 장학금 30억, 장수수당 2억, 응급환자 항공이송 30억
 - 경로당지원 25억, 양육수당 302억, 체육단체 지원 147억, 자살예방사업 3억
- ④ 글로벌**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랜드마크 개발 .. 414억원
 - 해외사업본부 설치 3억, 레고랜드교량 298억, GTI박람회 20억, 크루즈산업 5억
 -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42억, 해외관광객 마케팅 12억, 국제회의산업 지원 4.4억
- ⑤ 재난안전** 안전한 도민생활기반 마련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 .. 2,734억원
 - 소방헬기·장비교체 170억, 소방청사 129억, 하천재해예방·소하천정비 921억
 - 지방도유지보수 145억, 위험지구정비 509억, 마을공동체 2억, 평화마을조성 15억